돈황 막고굴 벽화내 다보탑의 住處공간적 의미와 그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Da-bo Stupa as a Residential Space of Buddha and Change in Paintings of Duhaung Mogao Caves

조 정 식

Cho, Jeong-Sik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김 버 들*

Kim, Bue-Dyel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공학박사)

조 재 현 · 김 보 략

Cho, Jae-Hyeon · Kim, Bo-Ram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arly use of Da-bo tap and their transformation by analyzing the various meanings of the term pagoda in Chinese translations, the Sanskrit version of the Lotus Sutra, as well as Dabotap in the Mogao Caves of Dunhuang. In addition, we aim to highlight changes in Dabotap usage, which started out as residential spaces, but transformed into burial spaces over time. The detai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arly Buddhist monuments were usually either pagodas serving as burial places for the dead or shrines that were not. A Dabotap is a type of pagoda enshrining the body of Prabhutaratna, and was initially used as a residential space, rather than a burial place for the dead. Second, the terms stupa and caitya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the Sanskrit scriptures, and stupa is also further classified into dhatu, sarisa, and atmabhava based on the object being enshrined. In Gyeon-bo-tab-pum, the preconditions for caitya to transform into stupa is presented by explaining that worshipping the space enshrining the body of Prabhutaratna is worthy of the same status as the space enshrining sarira. Third, the Mogao Caves of Dunhuang had been depicted from the Western Wei of the Northern Dynasties until the time of the Yuan Dynasty. It was used as a residential space until the early Sui Dynasty, but was used as both residence and burial places until the Tang Dynasty when pagodas were first being constructed with wheel or circles forms on top, which then gradually changed into stupa (grave towers).

주제어 : 돈황 막고굴, 다보탑, 법화경, 주처, 묘처, 유골탑, 사리탑, 사당

Keywords: Dunhuang Mogao Caves, Da-bo Stupa, The Sutra of Lotus, The Residential Space of Buddha, The Burial Space of Buddha, Dhātu Stūpa, Shārirā Stūpa, Caitya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기 불교의 기념 건축물은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무덤, 즉 묘처개념의 탑(shārirā stūpa, dhātu stūpa)과 예배공간 또는 승방의 개념을 갖는 사당(caitya)의 두 종류

로 출발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양자는 모두 stupa, 즉 묘탑으로 개념과 형태가 귀결되었다. 『法華經』 「見寶塔品」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다보탑 또한 二佛並坐, 즉 두 분의 부처를 모시기 위한 住處인 caitya의 의미에서 비롯되었지만, 점차 住處로서의 개념이 약해지게 되고 stupa인 墓處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돈황 석굴에 묘사된 다보탑도의 형태에 있어서 초기의 다보탑

* Corresponding Author : namu50@seoul.go.kr

과 후기의 다보탑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다보탑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 분야의 양식론적 연구¹⁾와 불교학 분야의 塔觀에 관한 연구²⁾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현존하고 있는 다보탑의 형태적 특이성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와 형태적 변화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미진하였다.

살아있는 부처를 경배하기 위한 다보탑에 대해서는 경전상에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돈황 석굴의 벽화 중에서 초기에 그려진 다보탑도에는 경전상에 언급되고 있는 다보탑이 잘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전상에 나타나고 있는 다보탑에 대한 서술과, 돈황 석굴에 묘사되어 있는 초기 다보탑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형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돈황 석굴 다보탑도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한국에는 단 1기의 다보탑만 존재하지만, 일본과 중국에는 다수의 다보탑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법화경에 근거한 3국의 다보탑은 같은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법화경 및 여러 경전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리고 각 지역의 건축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보탑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전상에 언급되어 있는 다보탑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한 각 지역으로 다보탑이 전파되기 이전의 형태를 고찰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돈황 막고굴에 그려진 다보탑은 그 시기가 명확하고, 그림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개수되거나 변형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과 함께 그려진 돈황의 다보탑도는 초기의 모습과 그 이후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자료이다.

한편 漢譯경전과 산스크리트어 경전에는 불교적 기념물로서의 탑의 개념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과 돈황 막고굴에 묘사된 다보탑의 건축적 특징을 함께 고찰하는 것은 초기 다보탑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³⁾ 본 연구에서는 漢譯법화경과 산스크리트어 경전에 명시되어 있는 탑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통하여 다보탑의 語義를 살펴보고, 또한 초기 다보탑의 모습이 돈황 벽화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통해 住處로서의 탑과 墓處로서의 탑의 출발과 변화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돈황 막고굴의 불탑도는 총 68기이며, 그 중 다보탑은 31기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한 31기는 주로 선행 연구 속의 모사도 및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출판된 화보집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⁴⁾

2. 경전에 나타나는 다보탑 개념과 특징

2-1. 탑의 語義 고찰

(1) 漢譯경전과 산스크리트 경전의 탑

동아시아 각 국의 불교경전은 중국의 漢譯경전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며, 그 경전의 내용은 佛說로 간주되어 절대 진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漢譯경전은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며, 산스크리트어 경전조차도 석가의 생존시에 정리된 것이 아니라, 入滅 후 그 제자들이 수차례에 걸친 結集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 내용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다시 번역되고 재해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漢譯 혹은 韓譯경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원래의 의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漢譯경전에서 지칭하는 단어의 정확한 어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원전이 되는 산스크리트어 경전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한역경전과 산스크리트어 법화경에서 설명하는 塔(stūpa)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황수영, 「다보탑과 신라팔각부도」 고고미술, 1974/ 황수영, 「한국 탑상의 연구-반가사유보살상과 불국사다보탑」 고고미술, 1977/ 박홍수 「다보탑의 평면도와 척도」 한국학보, 1977/ 정영호, 「다보탑·석가탑과 사리탑」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 1997/ 최미순, 「불국사 석가탑다보탑 해석시론」 이대석사학위청구논문, 2000/ 김수현, 「불국사 다보탑 조성의 사상적 배경」 홍윤식교수퇴임기념논문, 2000/ 박경식, 「석조미술의 꽃 다보탑」 한길아트, 2004/ 임제완, 「경주 불국사 다보탑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김동현·김상현, 『불국사』, 대원사, 2003/ 신영훈, 『불국사』 조선일보사, 2004

2) 이영자, 『법화·천태사상 연구』, 塚本啓祥지, 이정수 역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2010

3) 한역경전과 산스크리트어 경전의 비교는 塚本啓祥지, 이정수 역의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을 기초로 하였다.

4) 61기의 불탑도는 『돈황석굴전집』 총26권과 『돈황석굴예술』 총22권의 내용 중에서 불탑이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 벽화를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5) 塚本啓祥지 이정수역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pp27~32, 운주사, 2010 부처 제세기 부처는 속어였던 팔리어로 설법을 하였고, 따라서 초기경전은 팔리어 경전이다. 따라서 대승불교와 함께 성립된 산스크리트어 경전에도 부처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어의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법화경은 대승경전이기에 때문에 본 고에서는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원본으로 간주하였다.

Tab.1 Example of Stupa in Chinese and Sanskrit Stura(한역 및 산스크리트 법화경의 ‘탑’용례)

	漢譯경전	산스크리트어 원전
서품	또 제불의 반열반 후 붓다의 사리를 가지고 ① 철보탑 을 세우는 것을 본다	또 이들 불국토에서 멸도하신 제불세존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① 유골탑(dhātu-stūpa) 이 있어 그것을 모두가 다타난다.
서품 계송	문수사리여 모든 불자 등은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 ② 묘탑 을 장엄하니...	선지의 자식들은 여기에서 지나 ② 유골 에 이렇게 공양을 하게 한다.
방편품 계송	혹 어떤 사람이 ③ 탑묘 의 보상과 화상에 꽃, 향, 깃발, 달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하고	또 여래의 ① 유골(dhātu) 에 혹은 탑(stūpa)에 혹은 진흙상에 또는 벽에 묘사된 상에 모래담(pamsu-stūpa)에 꽃과 향을 바치는 사람과...
	혹은 어떤 사람이 예경하고 혹은 다시 다만 합장만을 하고 내지 한 손을 들고 혹은 다시 약간 머리를 낮추고...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심으로 ④ 탑묘 가운데 들어가 한 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청념하면 모두 불도를 이룰 것이다.	그것이 완전하든 단순히 합장을 하는 것이든 한 순간 머리를 낮추어라. 또 한 번만 몸을 굽혀라 그 탑에 합장을 하는 사람과 그때 그들 ① 유골이 안치된 장소에서(dhātu-dhāresu) 붓다에게 귀의하고 받든다 라고 한번만 말하더라도 산란심을 갖고 한번만 말하는 사람과 그들 모두는 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법사품	약왕이여, 곡곡에서 혹은 설하고 혹은 읽고 혹은 독송하고 혹은 스고 혹은 경전이 있는 곳에서 ⑤ 철보탑 을 세워 지극히 높고 넓게 장엄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⑥ 사리를 안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약왕이시여 어떠한 토지에서든 그 법문이 설해지고 보여지고 서사되고 서사되어 경전으로 만들어지고 독송되고 국토에서는 약왕이여, 높이 솟은 큰 보석으로된 ⑥ 여래의 사당(tathagata-caitya) 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여래의 ⑥ 사리(tathagata-shārīra) 가 안치될 필요는 없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여래의 진신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 법문이 설해지고 보여지고 읽혀지고 영탄되고 사사되고 사사되어 ⑦ 경전으로 만들어져 존제하는 곳에서는 또 탑(stūpa)에 대해서와 같이 공경, 존중, 공양, 찬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별공덕품	선남자 선여인은 우리를 위해 탑사를 세우고 승방을 짓고 사사(四寺)를 가지고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에 마음을 쓴다. 무슨 까닭인가? 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이것이 이미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을 ⑦ 불사리를 가지고 철보탑을 세우는 것이다.	아지타여,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이 우리를 위해 많은 탑을 건립하고 많은 정사를 건립하고 비구승가를 위하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약이나 필요한 물품을 공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왜인가? 아지타여 ⑧ 나의 사리(sarīresu)를 위해 이 선남자 선여인에 의해 사리공양의 철보로 만들어진 탑(shārīra puja sapta-ratna-mayas...stūpah)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여래의 멸후에 만약 수지하고 독송하고 타인을 위해 설하고 혹은 스스로도 서사하고 혹 다른 사람에게서 사하게 하고 경전을 공양한다면, 또 ⑧ 탑사를 세우고 승방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여래가 멸도할 때 이 법문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교시하고 서사하게 하는 사람은 나이가 멸도했을 때 ⑨ 유골탑(dhātu-stūpa)을 건립하거나 승방을 공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독송하고 수지하고 타인을 위해 설하고 혹 스스로도 서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서하게 하면, 또 ⑨ 능히 탑을 세우고 또 승방을 만들고...	이 법문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교시하고 서사하고 서사하게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불지에 이를 만한 무량무수의 복덕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⑩ 여래의 사당을 공경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다.
분별공덕품	아일다여, 이 선남자 선여인이 혹 앉고 혹 서고 혹 경행하는 곳, 이 가운데 다시 ⑩ 마땅히 탑을 세워야 할 것이다. 모든 천인이 모두 마땅히 공양하는 것이 ⑪ 불탑과 같아야 할 것이다.	아지타여, 이 선남자 선여인이 머물고 앉고 경행하는 것에는 아지타여, ⑪ 여래를 위해 사당(caitya)이 건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래의 탑(stūpa)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말해져야 할 것이다.
	그 머무는 곳에 경행하고 혹은 앉거나 눕고 내지 하나의 계승이라든 설하러 하고 이 가운데 ⑫ 마땅히 탑을 세우고 장엄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갖가지로 공양해야 할 것이다. 물	이러한 현자가 어떤 경행처에 머무르려 하고 앉는다면, 현자가 어떠한 곳에 누우려 하고 한다면 이 경전에서 한 계승을 독송하는 것으로 ⑬ 최고의 사람(purusottama)을

	자가 이 땅에 머물면 곧 이는 붓다를 수용한 것이다. 항상 이 가운데에서 경행하고 혹은 앉거나 누워야 할 것이다.	위해 아름답고 훌륭한 탑(stūpa)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신력품	혹은 동산에서도 혹은 숲에서도 혹은 나무 아래에서도 혹은 승방에서도 혹은 재가자의 집에서도 혹은 전각에 있어서도 혹은 산, 계곡, 광야에서도 이 가운데 ⑬ 모두 마땅히 탑을 세워 공양해야 할 것이다	이 법문이 독송되고 해설되고 교시되고 서사되고 사고되고 말해지고 음송되고 경전에 안치되는 곳에서는 동산에서도 정사에서 집에서도 숲에서도 도시에서도 나무 밑에서도 누각에서도 초막에서도 굴에서도 그 토지에 ⑭ 여래를 위해 사당(caitya)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견보탑품	이 ⑭ 보탑 중에는 여래의 진신이 있다.	대낙설이여, 이 ⑭ 대보탑 가운데에 여래의 신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tathagatas atomabhava s...eka-ghanas) 안치되어 있다. 이탑은 이(여래) 자체이다.
	시방세계 처처에 혹 법화경을 설하는 자가 있으면 그 보탑으로 하여금 그 앞에 용출케 하고 ⑮ 전신을 탑 가운데 있게 하고...	나의 이 탑은 시방의 일체세계 어떠한 불국토에 있어서든 이 정법백련화라고 하는 법문이 설시되는 곳에는 ⑮ 나의 분신인 탑(man'atmabhava-vigraha-stūpa)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낙설이여, 지금 ⑯ 다보여래 를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자 땅에서 용출하여,	따라서 대낙설이여, 이 세존 ⑯ 다보여래 응공 등정각자의 사리탑(shārīra stūpa)이 이 사방세계에서 이 정법백련화라는 법문을 내가 설했을 때 이 집회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① 공양물 dhātu, shārīra 와 atmabhava

산스크리트경전의 불교 공양물은 유골탑(dhātu-stūpa), 사리탑(shārīra stūpa), 사당 혹은 지체(caitya)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dhātu, shārīra 그리고 atmabhava의 세 가지를 봉안한다.

dhātu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 요소(element), 혹은 체액, 분비물, 원액,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뜻이 있다. 둘째, 세계, 국토(loka-dhātu)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동사의 어근(root), 넷째, shārīra의 의미, 다섯째, 혼, 최고 정신 등 이 다섯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 불교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며, ‘사리’라는 의미는 법화경에서만 나타난다.⁶⁾

shārīra는 부처님의 사리인 불사리를 나타내며, 화장과 다비를 하고 남은 실질적인 사리를 뜻한다.

atmabhava는 身體, 自體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身으로 漢譯한다.⁷⁾

처음에는 3가지의 의미가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shārīra의 의미가 확대되어 dhātu, atmabhava까지 사리로 불리게 된다.

법화경에 기반하여 볼 때는 dhātu란 오직 부처의 유골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리(shārīra)는 부처의 유골을 태우고 나오는 쇠신사리를 포함하여 부처와 관계된 사람들과

6) 본 정의는 문율식 교수와 우제선 교수의 도움을 얻어 정리하였다.

7) 모두 버리다라는 의미의 “parityaga”와 결합하여 법사품(atmabhava-parityaga)이라는 용례가 있다. 법사품은 법화경 제10품에 해당하며, 금강명경과 무량수경에도 나타난다.

물건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부처의 치아, 옷, 말씀 및 제자들의 유골까지도 모두 사리로 본다. 불교 최초의 묘탑인 산치3탑은 부처보다 먼저 입적한 부처의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불의 사리를 모신 탑인데, 이를 사리탑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현재 사전에서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dhātu와 shārirā는 애초에는 다른 의미로 출발하였다. 신체(atmabhava)⁸⁾는 열반하지 않은 전신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보여래의 전신을 atmabhava라 하고 그것이 사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다보여래를 전신사리라고 칭하게 되고 결국은 다보탑이 전신사리탑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다보탑은 묘처의 공간이 아니라 다보여래의 주처 공간이다.⁽¹⁴⁾

② stūpa와 caitya

산스크리트어 경전에서는 열반 이후의 신체를 의미하는 dhātu와 shārirā를 모시는 공양물은 스투파라고 한다. 그러나 사리가 없거나 신체를 모시는 경우는 caitya라고 하여 구분한다. 따라서 각각의 단순한 사리봉안과 탑 건립, 사당건립이 각기 다른 상징성을 지닌다. 법화경의 경우 제10법사품까지 유골탑(dhātu stūpa) 공양이 강조되지만, 법사품 후반과 11품 견보탑품 부터는 유골탑 공양을 금지하며 사당(caitya, 성전; caityagrha)⁹⁾건립을 강조하고, 다보여래의 사리탑(shārirā stūpa) 공양이 나타난다. (5, 6, 9)

<Tab.1>에서와 같이 각기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유골탑, 사리탑, 사당이 漢譯경전에서는 모두 ‘塔’으로 번역되면서 모두 같은 의미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한역 법화경에서 ‘탑을 지어야 한다’고 설한 부분이 산스크리트어 본에는 ‘탑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반대로 설명을 하거나(8, 9), 또는 한역경전에서 ‘여래의 사당을 지어라’라며 공역을 강조하거나 ‘여래의 사당은 stūpa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엄격하게 구별되던 stūpa와 caitya의 구별이 모호해지며, caitya가 불사리탑(stūpa)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초기에는 stupa와 caitya에 공양하는 도구 자체를 분리하였을 정도로 stupa와 caitya의 구분은 엄격하였다.¹⁰⁾ 또한 사리가 있는 것은 탑, 사리가 없는 것을 caitya(지제)라고도 구분하는데, 외형이 유사하여 구별이 일정치 않다. caitya는 쌓다, 모

으다는 뜻에서 파생되었으며 漢譯경전 支提, 制底, 制多로 음사하고 塔, 靈廟, 墓로 의역되어 왔다.¹¹⁾ 현재 한국에서는 stūpa는 불탑, caitya는 부도로 인식하고 있다.¹²⁾ caitya는 stūpa를 caitya의 구성물로 편입하면서 caitya는 탑원의 의미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산스크리트 경전에 의하면 법화경이 설해지는 장소에는 사리탑(dhātu stūpa)이 아니라 여래의 사당(caitya)이 건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화경이 설해질 때 나타나는 다보여래의 전신을 모시는 다보탑은 caitya의 개념이다.¹³⁾ 즉 무덤과 같은 묘처의 개념이 아니었다.¹⁴⁾ 다보여래의 신체(atmabhava)를 모시는 사리탑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다보탑의 탑명은 법화경에만 나타나며, 漢譯과정에서 탑(신사리탑: dhātu stūpa)과 탑원(caitya)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탑(stūpa)으로 번역함으로서 漢譯경전에서는 신사리탑과 법사리탑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보탑(shārirā stūpa)은 다보여래의 사리탑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사실은 법화경 전반에서 법사리탑인 탑원을 의미하고 있다. 법화경의 유행과 전파는 사리공양과 법공양의 논쟁을 해결하였고, 탑원의 위상이 탑과 동일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근거가 되었다.¹⁵⁾

(2) 명문속에 나타나는 불교적 기념물

경전 이외에 나타나는 탑 및 공양에 대한 기록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굽타이전의 시기가 압도적으로 많다.¹⁶⁾ 사리봉안의 경우 굽타이전에 60건, 굽타기에 2건, 탑·사당·지제의 건립은 굽타이전에 31건, 굽타기에 3건, 이며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도 내에서 불교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법화경에서만 다보탑이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다보탑의 특징을 명확히 하는 점도 있지만, 반대로 탑에 대한 비중이 사리탑만큼 크지 않았고, 오직

11) 塚本啓祥 저 이정수역, 『전게서』, p.197

12) 우리는 탑과 부도를 모시는 주체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부처를 모신 조사를 모신 탑과 부도를 구분없이 사용한다. 이는 경전이 漢譯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스크리트어의 buddha가 중앙아시아 토리카어에서 but이 되고, 붓(but)은 부도, 부도, 불 등 다양하게 음역되다가 불로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즉, 부도는 구조물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부처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한역경전에서는 탑과 부도의 구분이 없다. 이종철, 『중국 불경의 탄생』, 창비, 2008, p.39

13) 塚本啓祥 저 이정수역, 『전게서』, pp.169~183

14) 또한 사리탑은 신사리와 법사리를 모시는 두 가지 탑으로 구분된다. 마하승기율에도 사리가 있는 것을 탑, 사리가 없는 것을 지제(사당)이라고 명하고 있다. 초기에는 스투파가 숭배대상이 아니었으나, 후대에 불교적 기념물로 불가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스투파와 차이티야가 결합하게 되는데, 漢譯경전에서는 그 구분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15) 布施浩岳(1934), 『法華經成立史』 「法華經の塔觀」, p.9

16) 塚本啓祥 저 『전게서』, p.189 표 참조

8) 이기영, 「捨身에 관하여」, 동국사학 7권, 1964

9) caitya에 대해서는 승원, 사당, 지제, 제다, 묘 등 정확한 의미전달이 어려우므로, 본 고에서는 caitya(차이티야)로 칭한다.

10) 탑에 공양하는 기구와 지제에 공양하는 기구를 별도의 구분 없이 허용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탑에 공양하는 기구를 가지고 지제에 공양하여도 되겠습니까? 되오.’ (『摩訶僧祇律』) 이는 탑과 지제 공양하는 도구가 『摩訶僧祇律』 이전에는 구분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부처와 그의 제자들의 묘탑만이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鳩摩羅什의 漢譯경전과 이후 동아시아에서 법화경의 위상으로 볼 때 현재 다보탑의 모습은 韓中日의 삼국불교와 불교건축의 특징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본래 탑은 부처의 신체를 모시는 사리탑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나마 佛家가 아닌 재가자들이 관리하였다. 그러다가 부처관련 유물과 부처의 경문을 모시는 법사리탑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부처의 경문을 증명하는 증명탑까지 탑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법화경에 나타나는 다보탑의 본 의미는 탑이라기보다는 부처가 거처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다보탑은 漢式전각이나 인도식 스투파의 형태가 아니라 이불병좌한 두 부처가 日傘아래 마주하고 있거나, 마주한 부처 사이에 불탑을 공양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Fig.1 Two seated Buddhas, No.259, in BèiWèi times(이불병좌, 259굴, 북위)

추정된다.¹⁷⁾

(3) 초기 스투파의 형태

탑은 석가모니를 기리는 기념 성함물이자 기념묘소로서 그 기원은 불교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투파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가는데 그 상자에는 부처와 제자들의 유골 혹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물건들이나 경전이 봉안된다.¹⁸⁾ 초기 스투파의 형태는 anda라고 불리는 돔의 형태로 산치대탑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산치대탑은 『摩訶僧祇律』 「作塔法」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탑을 짓는 법은 아래의 基壇 사방에 欄楯을 둘러 세워 동그렇게 두 겹으로 일으키고 方牙가 四方으로 나왔으

17) 범어가 漢譯되고 다시 韓譯되는 과정에서 탑을 지칭하는 용어와 대상은 많은 혼돈이 있어왔다. 초기 다보탑을 살피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되도록 범어의 의미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그 다음은 한역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리탑을 의미하는 śāriṣa stūpa의 경우는 스투파로, 중국에서 이미 한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탑은 탑으로 표기하여 혼돈을 줄이고자 한다.

18) 에미엔 라모트 지음, 호진 역, 인도불교사1, p.600, 시공사 재인용

며, 그 위에 반개와 장표와 輪相을 베푸는 것이다.”

작탑법에 의하면, 탑 조성의 건축요소인 기단, 난간, 계단, 상륜 그리고 복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요소이다. 다른 조탑경에서도 이 내용에 근거하여 각종 장엄을 부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묘처공간으로서의 탑 조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Fig2 Sandhi great stupa(산치대탑 출처 <http://blog.naver.com/roa0002>
rhn?blogId=roa0002&logNo=110169118905)

<Fig.2>에서와 같이 산치대탑에는 조탑경에서 언급한 불탑의 부속물이 모두 표현되어 있는데, 산치에는 부처의 묘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 생존시에는 부처의 손톱과 모발을 봉안한 탑이 조성되었으며, 부처보다 먼저 입적한 부처의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련의 사리를 봉안한 탑도 있다.¹⁹⁾ 결국 『摩訶僧祇律』을 비롯한 초기경전에서 스투파는 기념비적 성격을 지닌 “무덤”을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 법화경에서 설명하는 다보탑의 개념

(1) 법화경의 성립

불교는 천축에서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전파되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에는 법술과 주술의 수준에 머무르거나 도가의 한 갈래로 인식되어 경전의 기초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403년 後秦 황제는 鳩摩羅什을 국사로 봉하며 후진을 불교제국으로 만들었다. 이후 구마라집이 번역한 불경은 30부가 넘었고,²⁰⁾ 꾸준한 불경의 번역은 불교학과의 생성과 소의 경전에 의한 신앙을 유행시켰다. 법화경이라고 통칭하는 묘법연화경도 이 시기 번역된 것이다.

이 시기는 돈황 개착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이며, 수많은 경전들이 漢譯되었다. 如是我聞으로 시작하는 경전

19) 윤장섭, 『인도건축사』 p.47/ 塚本啓祥 『전계서』, p.206 에서 산치3탑으로 추정.

20) 그 이전에도 불경이 들어오고 번역이 되었지만, 부분적인 것이었고 구마라집으로 인해 비로서 불경으로 체계가 잡히고 불교의 장엄한 면모가 들어나게 된다.

은 불교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뒷받침이 되었다. 특히 법화경은 造塔 자체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불교계에서 건축, 불상, 불화 등 불사를 이끄는 데 훌륭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법화경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을 가리키지만, 중국에서 한역된 법화경은 이 외에도 2본이 더 있다. 하나는 286년 竺法護에 의해 번역된 正法華經이며, 나머지는 601년 시나굴다와 급다가 번역한 添品妙法蓮華經이다. 첨품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집의 법화경을 본서로 하였는데, 서문에서 정법화경과 묘법연화경은 원전이 다르다고 지적한다.²¹⁾ 이는 법화경이 일시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걸쳐 증보되었고, 원전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마라집에 의한 법화경은 애초부터 중국인 제자들이 함께 번역하고 그 내용을 구마라집과 함께 원전을 찾아 일일이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형태의 漢譯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의 이역본으로 알려져 있으나, 두 경전은 각 품의 배열에 차이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提婆達多品이 추가되어 품의 수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본 고에서 다루고 있는 견보탑품의 ‘다보탑’에 대해 정법화경에서는 “칠보탑”으로 묘법연화경에서는 “다보탑”으로 언급되고 있어 두 용어의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

다보탑은 법화경에서만 나타나는 용어이지만, 칠보탑은 법화경 外에 『金剛明經』 「捨身品」에도 나타난다.²²⁾ 사신품에서 칠보탑에 대한 묘사는 견보탑품과 같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³⁾ 그런데 견보탑품에서 나타나는 다보탑과 달리 칠보탑은 마하살타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탑, 즉 묘탑이다.²⁴⁾ 따라서 두 경전은 같은 법화경 계통의 흐름을 갖는다 할지라도 칠보탑과 다보탑의 용어의 차이는 두 탑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 다보탑의 정의

다보탑의 원 명칭은 ‘多寶如來常住證明塔’이다.²⁵⁾ 따라

21) 정승석 『법화경』, p.43, 사계절, 2004

22) (중략) 그 때 대왕 마하리타와 그 왕비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다 모두 몸에 걸친 어의와 영락을 벗고 모든 대중들과 대숲속으로 가서 그 사리를 거두어 곧 그 자리에 칠보탑을 세웠다.(중략)

23) (중략) 대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대강당에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칠보탑이 땅에서 솟아나고 온갖 보배의 그물이 그 위를 가득 덮었다.(중략) 너는 이 탑을 열고 그 속의 사리를 꺼내어 이 대중에게 보이라.(중략) 그 탑의 문을 여니 그 탑속에 칠보의 함이 보였다. 손으로 그 함을 열고 보니 그 사리의 색이 아름답고 흰색이었다.(중략)

24) 법화경제6 수기품에는 “모든 부처가 죽고 난 후 칠보탑을 세우되 불탑에 장표금찰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 칠보탑은 사리탑인 묘탑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 증명탑인 다보탑은 적어도 일반적인 묘탑과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었으며, 따라서 돈황 막고굴에 나타나는 초기 다보탑은 흔히 탑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덤’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보탑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보불이 안치되어 있는 탑²⁶⁾

② 다보여래의舍利를 모신 탑²⁷⁾

이상의 정의에서 다보탑은 다보여래와 관계가 있으며, 다보여래불과 사리를 같은 의미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다보여래를 모신다는 것은 ‘금당’이나 ‘전각’의 개념이며, 사리를 모신다는 것은 ‘묘탑’ 혹은 ‘사리탑’의 개념을 의미한다. 사전의 정의에서조차 다보탑의 개념이 주처와 묘처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보탑은 범어로 prabhuta-ratna stūpa, 즉 다보여래(prabhuta-ratna)를 모신 탑이라는데 착안하여 다보여래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보여래의 정의는

① 법화경의 진실한 뜻을 증명하기 위해 땅에서 솟아난 탑 속에 있는 부처님의 이름. 동방에 있는 보정세계의 교주²⁸⁾

② 多寶佛이라고도 한다. 동방 寶淨世界의 부처로서, 그가 보살로서 成道한 후 그 本願에 의하여 全身舍利가 되었는데, 어느 곳에서나 法華經을 설하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 寶塔이 솟아나오게 하여 그 설법을 증명해 보였다.²⁹⁾

위의 경문에서 보듯이 다보여래는 처음부터 사리의 개념이 아니었으나, 스스로 성도한 후에는 석가모니의 사리와 같은 등급으로 간주되었다. 다보탑은 초기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탑(shārirā stūpa)의 개념이 아닌 탑원(caitya)이었으나, 사리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사리탑의 개념으로 다시 변하게 된 것이다.

耘虛龍夏는 탑 봉안물에 따라 탑을 진신사리탑, 범신사리탑, 승사리탑으로 분류하였다. 승사리탑은 우리나라에

25) 塚本啓祥『法華經の成立と背景』, 東京: 佼成出版社, 1985, 윤허용하 『불교사전』 「사리조」, 동국역경원, 1961

26) 가산불교대사전, p.825, 가산불교연구원

27) 두산백과사전

28) 가산불교대사전, p.823, 가산불교연구원

29) 두산백과사전

서만 ‘부도’로 별도 분류하지만, 경전에서는 부도와 탑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법신사리는 부처의 말씀인 경전을 봉안하는 탑이다. 진신사리는 불사리를 의미하며 전신사리와 쇠신사리로 나뉜다. 쇠신사리는 부처의 열반사리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산치탑으로 무덤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신사리는 전신 자체가 처음부터 사리와 같은 상징성을 지니는 것으로 다보여래가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보여래를 모시는 공간은 탑이지만 무덤이 아니라 집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돈황 막고굴의 초기 다보탑도이다.

사리는 부처의 열반이 전제될 때 출현하는 상징체이기 때문에 法身佛인 다보여래의 탑에는 사리를 안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다보탑은 부처의 墓處가 아니라 부처의 住處의 개념이며, 이러한 내용이 돈황의 초기 다보탑에 나타나는 것이다.³⁰⁾

2-3. 법화경에서 설명하는 다보탑 건축의 필수요건

『법화경』 「견보탑품」에 나타나는 다보탑의 건축요소와 다보탑 주변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¹⁾

(1) 다보탑의 건축표현

견보탑품 중 다보탑의 건축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다보탑의 형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다보탑의 명칭, 탑의 규모, 의장, 입지, 형태 및 수장을 설명하고 있다. 규모와 입지는 현실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주변과의 상대적 크기, 구름, 高臺 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천왕궁에 이른다는 탑의 높이 또한 관념적인 것으로 寶塔涌出과 함께 다보탑이 절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고귀한 모체임을 표현한다.

둘째, 다보탑의 주변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다보탑의 출현이후 三變土田으로 빛, 보배, 유리, 꽃 공양으로 인해 주변은 장엄하게 변화한다. 대표적인 장엄이 꽃 공양인데 법화경은 경전명에 ‘華’가 들어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불법의 뛰어난을 말로 표현 할 수 없어 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꽃 공양은 삼변토전의 마지막 공양으로 다보탑의 문이 열리고 다보여래가 모습을 보이기 직전의 상황을 연출한다.

셋째, 다보탑 내력에 대한 설명으로서, 탑 내에 계신 다보여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증명탑으로서의 다보탑을 설명한다. 이 부분은 다보탑의 문이 열리고 다보여래와

석가모니가 자리를 반분하여 이불병좌하는 가장 극적인 요소이다. 다보탑의 표현에 있어 탑신, 수장의 개방, 불상 안치 등이 건축구조와 의장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법화경』 「견보탑품」의 다보탑 건축에 대한 설명은 『摩訶僧祇律』과 같이 기단, 난간, 복발처럼 구체적으로 탑을 구성하는 건축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관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현실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묘처 공간의 탑을 묘사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비현실적인 높이규정과 극도의 장엄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불법으로 三變土田한 주변을 함께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법화경의 취지에 맞게 다보탑 자체의 극적인 장면변화를 일으키는 虛空會는 법화경의 서원과 불설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2) 다보탑의 장면 변화

이상의 내용을 통해 다보탑의 장면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탑용출의 다보탑을 설명하는 장면이다.³²⁾ 다보탑이 공중에 솟아오르며 장면이 시작하고, 석가모니는 대중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탑만 공중에 있으며, 대중과 보살들은 탑 아래에 있게 된다. 또한 다보탑의 극진한 장엄을 설명하여 일반대중들이 우러러 보도록 설명한다.

둘째, 다보탑 주변이 청정낙원으로 변신하는 三變土田³³⁾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대요설보살이 다보여래를 친견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부처는 고통과 더러움으로 가

32) “그 때 부처님 앞에 7보탑이 하나 있었으니, 높이는 5백 유순이요 너비는 250유순으로, 이 탑은 땅으로부터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가지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5천의 欄干과 천만의 방이 있으며, 한량없이 많은 당번을 장엄하게 꾸미고, 보배 영락을 드리우고 보배 방울을 또 그 위에 수없이 달았으며, 그 사면에는 多摩羅跋旃檀香을 피워 향기가 세계에 가득하고, 모든 번개(幡蓋)는 금·은·유리·차거·마노·진주·매괴 등 7보를 모아 이루니, 그 탑의 꼭대기는 사천왕궁에까지 이르렀다. 三十三天은 하늘의 曼荼羅꽃을 비내리 듯 내리어 그 보배탑에 供養하고, 그 밖에 하늘·웅·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천만억의 중생들은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와 기악들로 그 보배탑을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33) “부처님이 이 보배탑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러 부처님들도 각각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하니 그 때 석가모니불께서는 분신의 모든 부처님이 다 모여 각각 사자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가운데 머무르시므로, 모든 사부대중이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며 우러러보았다. 이에 석가모니불께서 오른손가락으로 7보탑의 문을 여시니, 큰 성문의 자물쇠가 풀리어 열리는 것과 같이 큰 소리가 났다. 그 때 거기 모인 모든 대중들은 보배탑 안의 사자좌에 산란치 않으시고¹⁾ 선정에 드신 다보여래를 보며, 또 그의 음성을 듣고 말하였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불께서 이 『法華經』을 쾌히 설하시니, 이 경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이르렀노라.” 그 때 사부대중들이 한량없는 천만억 겁의 오랜 과거에 멸도하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未曾有라 찬탄하며, 하늘의 보배꽃을 다보불과 석가모니불 위에 흩었다.

30) 한정호,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석당논총46집, 동아대학교, p.180

31)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장경 번역본(<http://ebti.dongguk.ac.kr>)과 역주법화경언해(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를 대상으로 하였다.

득한 사바세계를 청정낙원으로 변하게 하고, 석가모니의 분신불이 모두 모이게 하였다. 사방에서 모인 불자들을 위해 법당을 세 번 변화³⁴⁾시키는데, 이를 두고 불교계에서는 현실세계와 극락세계가 다르지 않다고 말함으로서 현상 그대로가 진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방편품의 내용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여기서는 다보탑 주변에 모인 인물들이 모두 부처의 모습이며, 석가모니가 설법을 시작하면,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다보탑과 함께 공중에 떠오르게 된다.

셋째, 다보탑의 가장 큰 특징인 이불병좌³⁵⁾장면의 묘사이다. 석가모니가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역사적 차원의 부처라면 다보여래는 궁극적 진리를 증명하는 부처이다. 즉 역사적 차원의 부처와 궁극적 차원의 부처가 자리를 반분함으로서 方便과 實相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증명한다. 사실상 견보탑품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마지막 경전의 계송부분은 견보탑품의 첫 장면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법화경을 설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다보탑의 비례, 형태, 장엄 등의 건축적 표현들이 다시 설명되고 있으며 조탑의 공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탑의 모든 의장물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거룩한 향내와 함께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불병좌의 다보탑이 허공에서 모든 부처들의 예불을 받는 허공회로, 다보탑이 개방되면서 석가모니와 함께 자리를 반분하게 된다. 주변의 모든 대중들은 부처로 변하게 되면 사자좌에 착석하여 다보탑과 함께 공중에 머물며 다보여래와 석가모니를 알현하게 된다.

돈황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보탑도에 이불병좌가 묘사된 것은 허공회의 장면을 표현한 것이며, 이것은 다보탑만이 갖는 큰 특징이다.

Tab.2 Scene change of Da-bo stupa in the Stura of lotus (다보탑의 장면변화)

장면명	①보탑용출	②삼변토전	③이불병좌
공양인	대중, 보살	부처	부처(허공)
석가모니	보살과 대화	설법	이불병좌
다보탑	출현		개방
주변	탑만 있음. 공중에	대중, 보살, 부처 함께 공중	모두 부처로 化사자좌로 공중

3. 돈황 막고굴의 초기 다보탑

34) 첫째, 사바세계를 청정하게, 둘째, 강·하천·산을 평평하게, 셋째, 갖은 장엄으로 땅을 청정하게로 세 번 법당을 변화시킨다.

35) 그 때 보배탑 가운데 계신 다보불께서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석가모니불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불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자 곧 석가모니불께서 그 탑 가운데로 드시어 그 반으로 나눈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다.

3-1. 다보여래의 상주공간

(1) 돈황 막고굴의 초기 다보탑

돈황 막고굴에서 다보탑이 처음 등장한 것은 북위가 동서로 분열된 직후인 서위(535-556)인데 그 모습이 일반적인 건축, 탑이 아니다. 기단은 갑석과 저석 등을 사용한 일반 건축의 석조기단 구조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좌인 수미좌위에 이불병좌를 모시고 日傘을 씌운 모습이다.<Fig.3> 건축적 구조물이 아니라 공간의 표현이며, 건축물로 보더라도, 뚜렷한 塔上[탑정, 상륜]이 없어 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³⁶⁾ 이불병좌 상부를 덮은 日傘은 고대 인도에서 고귀함의 상징으로 왕족이나 귀인의 필수품이었다³⁷⁾.

Fig.3 Da-bo stupa, No.285, in XiWèi times(다보탑, 285굴, 서위)

건축적 구조물이 아니라 공간의 표현이며, 건축물로 보더라도, 뚜렷한 塔上[탑정, 상륜]이 없어 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³⁶⁾ 이불병좌 상부를 덮은 日傘은 고대 인도에서 고귀함의 상징으로 왕족이나 귀인의 필수품이었다³⁷⁾.

돈황의 초기 다보탑은 stūpa 혹은, 墓處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단, 탑신, 상륜과 같은 구분이 어렵다. 다만, 多寶如來常住空間의 통시대적 특징인 이불병좌를 봉안하기 위하여 기단의 역할을 하는 수미좌를 두었다. 수미좌에는 계단을 두거나, 사자좌를 암시하는 상이 있어 공양물을 위한 基臺로 간주된다. 즉, 부처가 있는 공간, 그 자체를 숭배하던 시기이며, 건물에 대한 공양은 차후에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탑의 상부 구조는 없지만, 日傘 위에 양화와 蕉葉³⁸⁾의 초기형태를 두어 일반적인 건축과 다른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동시기 일반 탑에서는 상륜을 비롯하여 다양한 탑의 모습을 갖춘 것과 비교된다.

초기 多寶如來常住空間의 형태는 북조의 영향을 받은 수대까지 나타나고 있다.³⁹⁾ 수대 다보공간의 경우 수미좌위에 이불병좌를 두고 장막 이상의 구조물을 구현하여 장

36) 중층탑과의 기원을 설명할 때, 탑은 전각식 건물(금당)위에 상륜을 올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인창 「중층형 탑파의 기원」, 2005.10,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따라서 상륜은 일반건축과 탑을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요소이다.

37) 日傘(양산)의 범어는 차트라(chattrā)이며, 이것을 한역한 것이 찰[刹]이다. 이시기 日傘은 단순히 장소를 표현한 것이지만 묘처의 공간인 탑으로 변하면서 탑상의 상륜·보륜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회봉은 인도 범어와 어의적 분석에 기반 하여 바퀴를 의미하는 용어의 오류를 지적한바 있다.(이회봉, 「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 건축역사 2010.8)

38) 초엽은 파초라고도 한다. 탑의 상륜부를 장식하는 요소로 보형인 탑, 오륜탑 등의 옥개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리장치(감은사, 송림사)를 비롯하여 궁궐의 당가에서 나타난다.

39) 하효진, 「고대 한국과 중국의 말그림 연구」, 홍익대석논, 2003, p.39

식하고 있는데, 지붕부분에 초엽의 장식을 갖추고 있어서, 다보탑의 개념이 상륜의 초기모습을 갖춘 묘탑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래 변상도<Fig.4>의 경우 다른 부처를 표현하는 공간은 전각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심지어 중층전각도 보이지만, 다보여래의 공간은 日傘으로 묘사되어 일반건축 혹은 탑과 확실하게 구분된다.

Fig.4 Illustrations of Lotus Sutra of No.303 in Sui times(법화경변 303호, 수대, 붉은 점선이 다보여래의 공간)

3-2. 돈황 벽화에 나타나는 주처의 공간

북위와 수대의 돈황 막고굴에는 부처를 모시는 두 종류의 공간 구조가 묘사되어 있다. 하나는 묘처의 개념으로서 불탑의 모습을 취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처의 개념으로서 부처를 모시는 전각의 형태인 경우이다.

불탑의 경우 이미 북위와 수대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층 누각식 탑의 형태, 인도산치탑의 형태와 漢族의 건축이 융합한 殿闕식 탑의 형태 그리고 인도의 산치탑의 모양을 그대로 모방한 형태가 있다.<Fig.5> 그리고 부처를 모시는 공간 역시 일반 대중들의 공간과 구분하여 日傘 혹은 전각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한다.<Fig.6, 7>

Fig.5 The stupa in Northern Wei dynasty(북위 시대의 불탑:①,②,④)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불탑이 존재하는 것은 당시에 이미 인도 산치탑을 비롯하여 기존의 漢族건축과는 다른 묘처로서의 stūpa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이를 중국의 풍토와 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변안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기 다보탑의 모습만은 묘처가 아닌 주처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다보여래가 머무는 공간이 탑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주처로서의 부처의 공간은 수대의 경우 <Fig.6>과 같이 광배와 좌우 협시가 있는 부처가 야외에 놓여 日傘으

로만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형태가 많다.

Fig.6 The separated Buddha space with parasol, Sui, No. 420(日傘으로 구분된 부처의 공간,수대 420굴 동벽)

Fig.7 The separated Buddha space with architecture and parasol, Northern Wei dynasty(전각 및 日傘으로 구분한 부처의 공간, 좌:435굴 북위, 우:45굴북벽 성당)

따라서 420굴의 다보탑을 비롯한 초기의 다보여래 공간은 stūpa가 아니라 부처가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日傘을 쓰거나 굴 안에 있는 부처의 모습은 이 공간이 무덤이 아니라 승방과 같이 定住하는 공간임을 상징한다. 즉 초기 다보탑의 모습은 이러한 주처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돈황 막고굴 다보탑과 변화

4-1. 주처공간에서 묘처공간으로의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묘탑(dhātu stūpa)인 일반 불탑의 영향과 塔觀의 변화로 인해 다보여래의 상주공간은 묘탑이라는 중복적인 의미도 함께 지니게 된다.

(1) dhātu stūpa의 漢化

탑에서 이루어진 인도건축의 漢化가 다보탑에 적용되면서 다양한 탑신을 갖춘 다보탑이 등장한다. 日傘형의 다보여래의 공간은 dome 형식의 지붕위에 상륜을 두는 형식으로 변하게 되는데<Fig.8> 스투파형 혹은 복발형이라고 불리며 불탑이 인도에서 건너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시기 다른 탑에서는 이미 漢式건축인 전각형 탑의 형태가 완연하며, 인도식의 스투파형 탑이 드물기 때문에 스투파형 다보탑의 등장은 이 시기 다보탑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처공간으로서의 다보탑이 묘처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으로 보면, 기단의 경우

가구식 혹은 전축식의 목조건축을 유념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이 또한 인도의 탑이 중국의 풍토에 따라 漢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당대 이후 막고굴에 등장하는 다양한 다보탑의 형태는 서역과 장안에서 유행하였던 경향들이 결합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당대 이후에는 완전히 漢化되어 일반 탑과 같이 전각형 다보탑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Fig.8 Appearance of various Da-bo stupa, parasol type⑩ · stupa type⑧ · royal palace type⑪(다양한 다보탑의 등장; 日傘형 막202굴, 스투파형 막232굴, 전각형 다보탑 막23굴)

(2) 상륜의 등장

이 시기 다보탑이 묘처의 공간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또 다른 자료는 상륜의 등장이다.

초당대에는 수대까지 나타났던 주처로서의 다보탑에 상륜이 없었으나, 당대부터 스투파형 탑신⁴⁰⁾위에 상륜을 얹은 다보탑이 출현하게 된다.

상륜은 여러 단계의 형태변화를 거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누각식 건축 위에 인도탑의 모습을 올려놓은 형태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상륜의 출현은 인도 스투파의 개념, 즉 墓處공간으로서의 다보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륜의 구성은 이전 복위, 복주 및 수대 일반탑의 상륜과 다르지 않아 다보탑의 상륜은 일반탑에서 모방하여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住處로서 시작된 다보여래의 공간이 하나의 구조물로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륜을 갖춘 탑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는 묘처와 주처의 개념을 가르는 상륜이 등장하여 다보탑의 ‘의미’와 ‘형태’가 서로 조화를 찾아가는 단계이다.

4-2. 墓處공간으로서의 다보탑(오대, 송)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보탑은 묘탑으로 변화하여 주처 공간인 사당(caitya, 차이티야)의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견보탑품에서 나타나는 보탑용출과 이불병좌의 표현이 다보탑을 결정짓는 필수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1) 이불병좌와 보탑용출의 표현

이 시기 다보탑은 이미 다보여래상주공간이 아니라 묘

40) 종형, 복발형이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스투파형으로 통일하였다.

처의 형태에 기반하여 일반 불탑의 형태로 정리되기 때문에, 다보탑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치는 이불병좌의 봉안 뿐이다. 따라서 정면성이 강조된 단층건축의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된다. 대신 기단이 매우 높아지면서 高臺의 형태로 단순화되기도 한다.(24)(29) 이는 경전상의 보탑용출을 기단부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만큼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이르렀음을 뜻한다.(41)

한편, 초기 다보탑의 경우 난간이 부설된 계단이 함께 표현되고 있으나 중당 이후에는 답도만 나타난다.(23) 난간이나 답도의 무늬 등 의장적인 요소들은 화려하게 변화하지만 계단에 디딤돌이 표현되지 않아 실제로는 다보탑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점차 계단의 표현이 약화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19)(22) 이 또한 높은 곳에 있는 보탑을 부연 설명하는 건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이후의 다보탑에는 多寶如來常住空間인 주처의 개념은 사라지고 점차 일반적인 탑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견보탑품의 핵심내용인 이불병좌와 보탑용출은 高臺, 답도의 형태로 표현되어 다보탑과 일반탑을 구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漢化된 당대건축물로의 표현

日傘형 이불병좌의 공간으로 묘사되었던 다보탑은 스투파형과 전각형의 출현을 거쳐 성당과 중당대는 단층 목조의 다보탑으로 규정된다. 특히 탑의 목결구 형태 및 건축세부기법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어서 당대 목구조를 살펴볼 때 중요한 자료이다.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이상세계를 대중교화의 목적으로 형상화하는 經變畵에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세계를 표현하는 데에는 경전에 나타난 건축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당대에 존재하였던 실제 건축물의 모습이 중요한 참고 대상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태밀교의 등장과 함께 밀종의 영향이 강한 다보탑도 등장한다. 이후 송대에는 돈황 유림굴에서 만다라도와 결합한 다보탑도가 나타나게 된다.(42)(68)

41) 이전에는 건축요소보다는 구름을 표현하여 공중에 떠 있는 다보탑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대에는 구름이 경전의 내용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건축물이 추가 되고 이런 요소들은 부적인 요소가 되어, 경전의 내용을 상징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인들에게 경변의 내용이 어느 것이 더 잘 이해되었을지는 후대의 경변을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42) 이러한 영향은 일본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밀교계 사찰에서 다보탑이 나타난다. 이불병좌한 두 부처는 다보탑 내에서 모든 불성이 중생을 계도 하고 있음을 상징하는데, 밀교와 연합하게 되면 다보불은 금강대일여래로, 석가불은 태장계 대일여래가 되며, 다보탑은 금강계와 태장계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된다.(돈황건축전집)

밀중형(361窟,중당) 전각형(만당) 전목혼합형(454窟,송)

Fig.9 Da-bo stupa in the after Mid-Tang(중당대 이후 다보탑)

단층목조 다보탑은 성당 대에 출현하여 송대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에까지 퍼지게 된다. 또한 동시기의 사리기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서, 당시 목조건축의 건축요소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송대의 다보탑도(Fig.9, ㉑)는 당시에 실재하는 목조건축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경전상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3) 상륜의 간소화

중당대에 화려한 수식과 함께 보륜이 강조되어 나타났던 상륜은 만당과 오대를 거치면서 覆鉢과 寶珠위주로 간소화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탑에서와 다르지 않다. 상륜만이 아니라 다보탑의 모습은 이불병좌의 표현을 제외하면 일반탑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묘탑의 형태로 귀결된다. 특히 목조다보탑의 경우 상륜부의 표현이 간소화 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보탑은 일반 목조건축의 정보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 목조건축의 건축요소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더 없이 좋은 자료이지만, 초기 다보탑의 개념과 의의가 약화되어 주처공간에서 시작한 다보

Tab.3 Da-bo stupa and stupa drawing list in Dunhuang Mogao Caves(돈황 막고굴 건축도 중 불탑도 목록)

(총 68건, 이후 본문에서 ○안의 숫자는 <Fig.3>의 그림을 뜻함)

구분 시기		다보탑					일반탑						
북조 (서위·북위 · 북주;선비)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수 (한)													
		④	⑤	⑥	⑦		⑦	⑧	⑨	⑩			
당 (한)	초당												
		⑧	⑨	⑩	⑪	⑫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성당												
		⑭	⑮	⑯	⑰	⑱	⑱	⑲	⑳	㉑	㉒	㉓	
	중당												
		⑲	⑳	㉑	㉒	㉓	㉔						
	만당												
		㉔	㉕	㉖	㉗	㉘	㉕	㉖	㉗				
오대													
		㉙					㉘	㉙	㉚	㉛	㉜		
송 (한)													
		㉚	㉛				㉚	㉛	㉜				
기타 (원-몽) (서하-티벳)			*유림굴										
		㉞					㉞	㉟					

탑의 고유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漢譯 법화경과 산스크리트어 경전에 나타나는 ‘탑’의 의미와 돈황 막고굴 속 다보탑도를 분석하여 다보탑의 초기모습과 그 변화과정을 살핌으로서, 다보여래의 공간이 住處공간으로 시작되어 墓處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多寶如來常住證明塔으로 정의된 다보탑은 부처의 쉼자리인 墓處가 아닌 신체를 모시는 住處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즉, 다보탑은 무덤에서 출현한 dhātu stūpa가 아니라 다보여래가 머무는 공간에서 출발한 것이다. 여기에 불국토의 환상적 공간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장식이 가미되었으며, 경배의 대상으로서 강한 상징성을 갖는 탑의 형태로 정착해 갔다. 돈황 막고굴에 나타나는 초기 다보탑도가 동시기 상륜을 갖춘 일반불탑과 달리 간단히 日傘만 씌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둘째, 초기다보탑은 ‘caitya’에서 ‘stūpa’로 변화했다. 漢譯법화경의 바탕이 된 산스크리트어 경전에는 stūpa와 caitya의 구분이 엄격하며 stūpa도 봉안하는 대상에 따라 dhātu, sarisa 그리고 atomabhava로 각각 구분하였다. 그러나 stūpa 탑관이 확장되면서 stūpa의 의미도 확대되어 갔다. 견보탑품에 따르면, 다보여래의 신체를 모시는 공간에 대한 경배가 다보여래의 사리를 모시는 것과 같은 위상이라고 설명함으로써 caitya가 stūpa로 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돈황석굴의 다보탑은 서위시대부터 원대에 이르기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唐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대까지는 住處의 공간으로 나타나며, 성당대에도 住處와 墓處의 공간이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상륜을 제대로 갖추기 시작하면서 묘탑의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시대가 내려올수록 垂飾이 화려해지고 있으며, 형태와 재료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동시기에 漢和되어 가는 일반탑의 모습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변하고 있다. 이는 건축적으로는 다보탑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寶塔湧出과 二佛並坐를 위시한 허공회의 표현은 다보탑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특징이며, 이 과정을 통해 법화경이 유행한 동아시아에서는 caitya가 stūpa의 개념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1. Academy of Don-huang(敦煌研究院), 『The art of Dunhuangcaves(敦煌石窟藝術)』, Nanjing(南京 江蘇美術出版社), 1994
2. Academy of Don-huang(敦煌研究院), 『completed works of Dunhuangcaves(敦煌石窟全集)』 vol4 · 21 · 22 · 23 · 25, Shanghai(上海人民出版社), 2000
3. Lee Young-ja(이영자), 『Pṇḍrika · T'ientai's Thoughts(법화 · 천태사상연구)』, Dongguk university Press(동국대출판부), 2002
4. Kim, Young-Bae(김영배), 『(Note)The sutra of Lotus in Korean(역주 법화경)』 Vol4, King Sejong the great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5. Jung, Seung-Suk, 『The sutra of Lotus(법화경)』, Sagyejeong(사계절), 2004
6. Lamotte, Etienne(에띠엔 라모뜨, 호진 역) 『History of Indian Buddhism(인도불교사)』 Sigongsa(시공사), 2006
7. Keisho Tsikamoto · Lee jeong-soo(塚本啓祥 · 이정수 역), 『Source Elements of the Lotus Sutra(法華經의成立と背景)』, unjusa(운주사), 2010
8. Cheon, Deuk-Youm(천득염), 『The Meaning and Form of India Stupa(인도불탑의 의미와 형식)』, Simmian(심미안), 2013
9. <http://ebti.dongguk.ac.kr>
10. Han, Joung-ho(한정호), 「The appearance of the Site Layout the temples with twin pagoda in Silla and The background of faith(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A collection of treatises of Seokdang(석당논총), No.46, 2010
11. Lee, Hee-Bong(이희봉) 「Fundamental Examination and Renaming of the Terminology of the Buddhist Pagoda(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 KAAH(한국건축역사학회), 2010.8
12. Cheon, Deuk-Youm(천득염), 「A meaning and origin of the stupa(불탑의 의미와 어원)」, KAAH(한국건축역사학회), 2011.10
13. Lee, Jong-Cheol(이종철), 『The birth of Buddhist scriptures in China(중국불경의 탄생)』, Changbi Publishers(창비), 2008

접수(2013. 10. 15)

게재확정(2013. 11. 21)